

## 동문교회, 언약교회 하나의 교회로 연합

“LA 지역 교회 연합의 좋은 모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문교회 언약교회 교회연합예배 및 목사위임, 임직예배



고귀남 목사와 이날 임직받은 직분자들

동문교회와 언약교회가 하나됐다. 두 교회는 지난 10일 교회연합예배를 드리고 언약교회를 담임하던 고귀남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다. 연합한 교회 이름은 동문교회로 하고, 예배당도 기존 동문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동문교회는 교회연합예배와 함께 임직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5명, 권사 3명 등 8명의 직분자도 세웠다.

고귀남 목사는 동문교회와 언약교회의 연합 배경에 대해서 “복음

의 확장을 위해 두 교회가 연합하게 됐다”며 “LA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두 교회의 연합은 양 교회의 모든 성도가 찬성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며 “앞으로 동문교회가 LA 지역 교회 연합 운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교회 재정을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모든 재정을 비워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39년 동안 지켜온 그의 목회철학을 동문교회에서도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동문교회와 제 목회 철학을 공유했고, 동문교회에서 기쁘게 수용해줬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이어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하길 원하는 교회’로 동문교회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만

큼, 후배 동역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는 위임국장 신상원 목사의 인도로 증경 노회장 나정기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 노회장 전용성 목사가 성경 봉독했다. 설교는 신상원 목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증경 노회장 강평근 목사와 정갑식 목사가 각각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

강평근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심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임직자들과 동

문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지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정갑식 목사는 “배려와 내려놓음 가운데 두 교회가 연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파를 통해 회개와 영혼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증경 노회장 박재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 탈북자 99.6% “북한에서 종교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인권’ 연례보고**

북한에서 정권안정, 사회질서 등

을 위한 생명권 침해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열악한 구금시설로 인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응답한 13,370명 중 13,320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

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한 13,563명 중 13,388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75명(1.3%)의 경우

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0%, 사망 17.2%, 미상 60.8%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신의 기자

이제는 안심하세요!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과 선택 기준’은?  
 바쁜 고령,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8,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시슬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번호 : 122043958  
 어카운트 번호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 364-7289, (213) 605-1983

NEWSONG MINISTRY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의 회복과 문화회복을 위해 집회사역과 YouTube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문화사역단체입니다.

**문화사역단체**  
**NEWSONG MINISTRY**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파트**  
 찬양팀 \_ 찬양인도자, 보컬(남,여)  
 악기팀 \_ 일렉기타, 세컨건반, 어쿠스틱 기타  
 미디어팀 \_ 디자인, 영상편집, 사진  
 음향 엔지니어

**자격조건**  
 세례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문화사역에 헌신할 분

**사역초청 및 문의**  
 Sarah Hwang 간사 : 714-742-0161  
 newsong\_ministry  
 newsongministryla@gmail.com

**NEWSONG STUDIO**  
 전문 음악 학원

**찬양 반주 집중 레슨**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CCM 반주법  
 밴드 앙상블 수업  
 라이브 녹음, 앨범 제작  
 연습실 대여

**714-737-7071** GRACEBAEK417   
 newsongstudiooc@gmail.com  
 7050 Village Dr. #1-2 Buena Park, CA 90621

# 교회의 첫 번째 비전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 새생명비전교회 10주년 기념 부흥회 개최



이동원 목사 초청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부흥회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를 강사로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동원 목사는 10주년을 맞은 새생명비전교회가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주문했다.

부흥회 셋째 날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이동원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와 그들을 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비전이 새생명비전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전도와 선교가 지상명령이라면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이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 교회가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목사는 또 둘째 날 ‘성숙’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새생명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와 아이의 단계를 넘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청년이 되고, 나아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이어지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교회”라며 “목회자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숙의 자리 아버지의 단계로 나아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지난 10년의 광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부흥회에서 감사인사를 전하는 강준민 목사

##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주년 맞은 소회 나누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가 교회 창립 10주년 맞아 그동안의 어려웠던 점들과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새로운 꿈을 향한 교회의 힘찬 도약을 종용했다.

강목사는 목회서신에서 “10년 전, 이민 목회자로서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참담함과 비참함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하는 일이었다”며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또 어려운 순간에서도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실패한 목회자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던 시선 때문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거의 3년 동안 식당에 가질 못했다. 마치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같은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임하고, 온 세상이 비웃는 것 같아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며 “지난 10년 동안

의 광야 생활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신 까닭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다”고 전했다.

강목사는 글렌데일에 소재한 현 새생명비전교회 비전센터 건축 과정과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개척 후 3년이 지날 무렵, 하나님의 은혜로 누 호프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중한 만남을 통해 교회는 20여 이커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땅을 구입한 후 비전 센터가 완공되기까지 오 년 동안 아내의 폐암으로 왼쪽 폐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다”며 “하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눈물 나는 성도들의 헌신, 격려를 통해 비전센터가 완공됐다”면서 어려운 시간 동안 함께 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목사는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는 잊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꿈 너머 꿈을 꾸는 새생명비전교회가 되자”고 했다.

김동욱 기자

## 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 손인식 목사, 뇌출혈 수술로 기도 요청



손인식 목사

KCC(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 대표인 손인식 목사가 지난 수요일 6일 저녁 미끄러

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1차와 2차 수술을 마쳤으나 신경계 장애로 청각과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족들은 손목사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강원도 철원 출생인 손인식 목사는 1990년, 42세의 나이로 베델한

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 65세까지 23년 동안 목회했으며 은퇴 후에도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한 동포를 위한 복음화 사역을 활발히 펼쳐왔다.

손목사는 한인교회연합을 통해 북한 자유를 위한 북한포럼과 통국 기도회,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탈북자와 북한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해왔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1-20 자격심정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한반도 통일 위해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 하나 돼야



LA 통곡기도회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참석자들



LA 통곡기도회에서 설교하는 박희민 목사

## LA 통곡 기도회 기쁜우리교회서 열려

본지와 CGNTV가 후원하고 '그 날까지 선교 연합'(UTD-KCC Missions•대표 손인식 목사)이 주최하는 LA 통곡기도회가 지난 10일, "북한 동포와 탈북자, 대한민국을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쁜우리교회(담임목사 김경진)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역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의 환경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자유와 해방, 탈북자들의 치유와 회복, 한반도 자유와 평화 통일을 놓고 목놓아 기도했다.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정지일 장로의 개회 기도 후 박희민 목사(UDT-KCC 공동대표)가 "통일시대를 준비합시다"(에스겔 37: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박희민 목사는 "북한은 지난 15년 이상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계 10대 종교집단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에도 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지만 북한에서 종교자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우리와 문화체제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며 "북한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장마당이 통용돼 남한의 많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 핸드폰이 500만 대가 사용되고 있듯이, 경제가 바뀌고 정보가 유입되면 변화의 물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함께 이스라엘 남북통일의 환상으로, 이 기

적이 우리 민족이 체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며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하나 되고, 교회와 조직, 단체가 하나 되고, 남한의 3만 2천여 명의 탈북자를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탈북자 예술인 총연합회 김영순 대표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김영순 대표는 평양 종합예술대학에서 '한국 춤'의 대가 최승희 선생에게 춤을 배워 평양 협주단 무용수로 활동했지만 1970년 김일성과 김정일 일가의 사생활에 대해 안다는 이유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뒤 1979년에 풀려난 간증을 전했다.

김 대표는 "9년의 수감생활에서 중노동과 강제노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큰 아들은 사고로 잃었다"며 "7명의 가족 중 자신과 아이 셋만 간신히

출소해 딸은 임양을 보내고 막내아들은 탈북하다 잡혀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생이별의 아픔을 증언했다.

그는 "1947년도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진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인생의 질투 같은 어둠의 기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으로 2002년 중국으로 탈북해 5개월간의 사투 끝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를 거쳐 2003년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게 하셨다"며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대한민국이 처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과 북한 정권을 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복음 통일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기도해달

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LA 챔버 콰이어(지휘자 이정욱)의 특별 찬양에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훈 목사(LA 참교회), 강태광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 샘 신 목사(51대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인도로 북한의 동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탈북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또 특별 순서로 김한요 목사(베델교회)의 인도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손인식 목사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경진 목사는 "통곡기도회를 통해 북한 인권법이 상정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어났다"면서 "기도했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헌금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 한샘교회 창립 2주년, 총 10명 직분자 세위



한샘교회 창립 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기념촬영

한샘교회(담임 이순환 목사)는 지난 10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로 1명, 안수

집사 1명, 권사 8명 등 총 10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교회 창립예배를 인도한 이순환

목사는 "새 간판을 달고"(빌 3: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순환 목사는 "앞으로도 한샘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쉽고 안식을 얻게 하고 심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흘려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드보라 선교회 자동차 도네이션 요청

남북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드보라 선교회(회장 박요한 목사)가 남가주 기독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차량 도네이션을 요청했다.

박요한 목사는 "14년 동안 사용해 온 미니밴이 큰 고장으로 폐차를 하게 됐다"며 "선교회의 발이 될 자동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차 중에 상관없이 드보라 선교회에 차량을 도네이션 하길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213-216-9948 박요한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재와 통째수에서도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심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66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mmustall@gidcombrothers.org | www.gidcombrothers.org  
 166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mmustall@gidcombrothers.org | www.gidcombrothers.org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력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5 Redwings Rd  
 W. Valencia Dr

#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b>학위과정</b>	<b>다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b> <b>선교학 박사 (D.Miss)</b>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b>특혜</b>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출석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강의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2 추수 감사 오픈 하우스**

- LA 확장강의실 (11월 25일(월) 오후 7시)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529-4147
- 플러튼 본교 채플실 (11월 26일(화), 오후 7시)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5) 칭찬

행복하려면 친절하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양보한다든지 등의 친절한 작은 행동 하나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및 본머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와 관련된 과학 문헌의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했는데, 바로 ‘친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40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면 행복해진다’라는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21편의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연구진은 이러한 이전 연구들의 결론을 통계적으로 결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옥스퍼드대학교 인지 및 진화 인류학 연구소 올리버 스킷 커리 박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든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 돕는 친절한 행동으로 행복을 느낀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움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임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돕는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도 가깝고 먼 이웃들을 도우면서 보람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 복판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청년 멜빈 다마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길에서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고맙소, 젊은이! 나를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에 다다르자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노인을 노숙자라고 생각한 멜빈은 지갑을 열고 \$1.00을 노인에게 주면서 “영감님, 차비에 보태주세요.” “참 친절한 젊은이로군. 명함 한 장 주게나.” 멜빈은 무심코 명함을 주었습니다. “아 멜빈 다마 형제! 고맙소!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한 참의 세월이 흘러 멜빈 다마는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멜빈 다마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기사와 함께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 유언장에 휴즈 유산의 1/16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멜빈 다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유언장에서 휴즈는 멜빈 다마를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멜빈 다마의 친절을 일생에 가장 큰 친절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휴즈가 멜빈을 만난 그 날은 휴즈가 자가용 경비행기 사고로 네바다 사막에 불시착한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에서 겨우 살아서 정신을 차리고 사막을 빠져나올 때 멜빈이 휴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휴즈는 이런 멜빈의 친절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때 멜빈이 무심코 건넨

명함을 간직하다가 유언장에 남겨 놓으면서 큰 유산을 멜빈에게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유산의 1/16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원이었습니다. 가난한 멜빈이 무심코 베푼 친절과 \$1.00의 호의가 1억 5천만 배가 되어 되돌아온 것입니다. 멜빈 다마는 단 번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작은 친절과 작은 마음으로 나는 1불의 호의가 그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을 베풀면 다양한 유익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친절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이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친절의 가장 큰 유익은 친절을 베푸는 자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친절을 베풀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이 흐릿하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큰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행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친절이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친절의 힘은 희랍 철학자들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실크 웨이브 미션(SWM)의 국제 이사회가 열린다(1)”

실크 웨이브 미션은 2006년도에 터키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미주에서 몇몇 기도 동역자들이 모여 세웠다.

당시 막혀 있던 이슬람권 선교의 돌파를 위해 ‘터키 연합 중보기도회’를 개최하여 터키 동남부 해안도시인 안탈리아에서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현지 한인 선교사와 한국, 미주에서의 기도 동역자들이 총 288명이 모였다. 필자도 참여하여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실크 웨이브 미션은 그 후에 2016년까지 매년 터키에서 연합중보기도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부터는 현지 교회가 이어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실크 웨이브미션은 연합 중보기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2013년부터 발생된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고 현재 터키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등지의 현지인 교회 개척자 가정을 세워 46가정의 교회 개척자들을 후원하며 교회개척운동(CPM)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간 실크웨이브 미션이 해마다 사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대표인 김진영 선교사의 영적 리더십과 본부 사역자들의 헌신과 합치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한다면 선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운영이사회의 하나 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이사회는 미주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서도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이사회가 세워졌다. 이사회는 나라별로 각기 운영하다가 국제 이사회는 매 2년마다 연합으로 모인다.

지난 11월 4일에서 8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와 룩소에서 한국과 미주의 이사회들이 모여 국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집트의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을

새로 더 세우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사역보고를 듣고 선교회의 후원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교회 개척자들의 현황보고와 사역 비전을 들으며 이사회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2023년 터키가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는 그 나라와 영혼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현지 터키 교회에서 영적 돌파를 위해 우리 한인 교회들의 연합 기도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실크웨이브미션 이사회에서 기쁨으로 수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같이 해보자는 마음들이 모아졌다.

매년 이어왔던 연합 중보기도운동, 2010년도 예베소 광장에서 열렸던 2천 명 규모의 연합 기도회를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연합중보기도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가를 모두 알면서도 하나님과 이집트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그 사명 감당하자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다.

선교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 가는 화목한 이사회 모습에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 (계속)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뉴송미니스트리, 그곳에 가면 “예배”가 있다

##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삼은 예배 회복 꿈꿔



뉴송미니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 부에나파크 연습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예배로 회복되길 꿈꾸고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여기에 가면 예배가 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의 예배 회복과 문화 회복을 위해 지난 12월 결성된 뉴송미니스트리(대표 이정훈 이하 뉴송)가 찬양과 미디어로 문화사역에 동참할 팀원을 모집하며 사역의 확장을 준비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미디어 등으로 봉사하는 13명의 팀원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뉴송은 모임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됐지만 하나님만을 높이는 깊은 영성에 완성도 높은 음악성을 덧입혀 빠르게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남가주 지역 여러 교회에서 모인 팀원들은 그 직업도 다양하다. 평소에는 요리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 의사로 일하다가 모이는 시간

에는 모두 예배자란 이름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베데스다 찬양선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정훈 대표를 비롯해 구성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지만 찬양이 시작되면 모두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음악가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뉴송의 중심 사역은 예배 인도자가 먼저 삶 가운데 예배자로 바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찬양보다 예배자이자 예배 인도자로서의 중심을 올바르게 정립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뉴송은 예배와 찬양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들의 영성회복에 중점을 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찬양사역자와 예배 인도자로 교회를 섬기다 탈진하는 사례를 보게 돼요. 많은 교회에서 아직 영적으로 예배를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음악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인도자로 섬기도록 내모는 경우도 많고요.”

이 대표는 “역설적이지만 예배 인도자들은 다음 순서를 염두하느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예배에서 오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며 “예배 인도자들과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를 섬기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영적인 훈련이나 양육을 받기보다는 교회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다가 영적으로 채움과 힘이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먼저는 예배 인도자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며 “뉴송은 예배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와 영성

을 훈련하고 장소”라고 소개했다.

뉴송은 예배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세상의 음악 단체들이 연습생 시스템을 두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기 발굴해 교육을 시키듯 체계적인 교육과 영성훈련으로 전문 예배 사역자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뉴송은 평일에는 뉴송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간반,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CCM 반주법 등을 교육하며 예비 음악 사역자들의 요람으로 가꾸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학원이지만 찬양 사역자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역자를 발굴하고 작사, 작곡으로 앨범을 제작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꿈꾸고 있다”며 “뉴송은 남가주 지역에서 찬양 집회를 원하는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뉴송 사역 초청 및 문의는 newsongministryla@gmail.com 황인례 간사 714-742-0161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좌부터 뉴송미니스트리를 소개는 이정훈 대표, 이혜련 집사, 황인례 간사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회원 사망 시 평균 회비의 100배 금액의 장례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산/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mailto:ca@cmmlogos.org)

**캘리포니아 지역 CMM 설명회 안내**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 중인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금) LA와 Anaheim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바랍니다.

**213-318-0020 (이사라)**  
[hyenulee@christianmutual.org](mailto:hyenulee@christianmutual.org)



# 예언성취와 믿음(2)

요한복음 11:47-5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요한복음 11:47-53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니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 오셨다는 믿음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활생기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심령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기를 힘입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산등성이 집으로 올라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식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자매의 신앙의 한계는 죽기 전에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우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아프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죽음자체가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라 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하고 또 한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금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죽을 일만 재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들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니 삼베로 수족을 동인채로 나사로가 나오니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그 집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친구들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일로 인해 분개하며 이를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칭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권이 실추되면 육신의 생계가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마태복음 11:21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려는 자들을 막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 확장의 역사를 시기 질투하여 훼방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는데 핑계거리로 내세운 주장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갑자기 하는 말이 자신은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하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가야바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섬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입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야바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무리가 늘

어나서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게 되면 로마가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로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엄청난 백성의 희생이 따를 것을 우려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하나만 잡아 죽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흠어질 것이고,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었는데, 반대로 성령이 시켜서 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영적임장으로서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말은 가야바가 한 것이지만 그 말을 하계하신 것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로 선언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숫자가 많아지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흠어진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될 희생의 속죄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성령의 하계하신 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 살지 못했듯 우리가 말씀은 전하기 쉬워도 전하는 말처럼 믿어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수기 23:15이하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후 그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은 발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목회자인 발람이 발람이 제시하는 명예와 물질로 인해 자신의 양떼들을 저주해 달라는 발람의 말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

성이라고 성령께서 하계하심으로 말은 하지만 마음은 모압왕 발람이 제시한 명예와 물질만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는 있지만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증거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이끌어 등록시켜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빨리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확실하게 변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소개시킨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교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교인입니다. 그러나 늘 교인인 채로 살아가면 안 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성도(그리스도인 = 예수님의 사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생활태도가 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맺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이며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그 예언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져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동역자 초빙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를 초빙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2월 14일 (당일 도착하신 분까지 받습니다.)

**나. 모집대상**

1. 전임 부목사 0명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반주자 0명 (피아노 전공자)
3.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다. 지원자격**

1. 부목사 : 교구, 전도, 소그룹, 찬양, 청년, 미디어 사역 유경험자
2. 반주자 : 합창단 반주 및 주일 예배 반주 유경험자

**라. 부목사 지원 서류**

1. 이력서 (사진 부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별도의 가족사진)
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신앙고백 및 소명과 사역 경험에 관한 항목을 필히 기재)
3. 추천서 2부 (현 담임목사, 존경하는 목회자 각 1부씩)

**마. 반주자 지원 서류**

1. 이력서 (사진 부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2. 자기소개서
3. 추천서 1부 (현 담임목사)

**바. 접수 및 문의**

- \* 모든 지원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kcocoffice2@gmail.com)
-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 마감일 전까지도 사역자가 청빙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전임 부목사님들에게는 사택이 제공되며 사례비에 대한 내용은 면접 시 알려드립니다.

##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893-1652 / www.kccoc.com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 COLUMBUS DAY SPECIAL SALE



##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 전문가 21명 배출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 전문가 수강생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한인 기독교 사역자21명 이수  
한인가정상담소-풀러코리안센터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풀러코리안센터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일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풀러코리안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수강생들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역사·심리·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웠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교육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사회 특히 한인 기독교계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강 기회를 제공해주신 풀러코리안센터에 감사하다"며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인 교계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동안

간과했던 가정폭력은 물론 전반적인 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강생 중 한명인 서동국 목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가정내 가정폭력피해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회와 이런 교육을 받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진 사모는 "이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 수업을 듣고 한인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연방 법무성 산하 여성폭력 방지국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 무료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비만의 개선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자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Y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꿈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법” 스타 강사 김미경이 온다

오는 11월 15-16일  
굿네이버스 초청  
2019 드림토크콘서트 개최

유튜브 팔로워가 80만명이 넘는 김미경TV, '드림온',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등의 베스트 셀러로 유명한 스타 강사 김미경씨가 UN의 최상위협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www.gnusa-kr.com)와 함께 2019 드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꿈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11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에는 일반인 온누리교회(박신용 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11월 16일(토) 저녁 7시에는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나 티켓 구매가 필요 없는 무료 강연이며, 입장은 1시간 30분 전 부터 가능하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입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주관하는 굿네이버스 USA의 김재학 부부장은 “김미경씨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2019 드림 콘서트를 통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꿈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하루 한

2019 드림토크콘서트  
스/타/강/사 김 미 경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

스타강사 김미경씨가 언버인과 LA에서 무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응원과 감동을 전해줄 토크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료토크콘서트 이므로 선착순 마감 될수도 있습니다.

FREE

[OC] 11/15 금. 7:30pm,  
일반인온누리교회 (박신용 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LA] 11/16 토. 7:00pm,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주최| Good Neighbors |문의| 877-499-9898 www.goodneighbors.us

끼만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은 것이 꿈인 아프리카 니제르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전세계 빈곤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 월 \$35로 후원자가 아동과 1:1로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돕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 중인 소리엘 장혁재 교수, 조수아 등을 초청하여 미주 지역에서 매년 약 3주 동안 ‘재능기부’ 하며 콘서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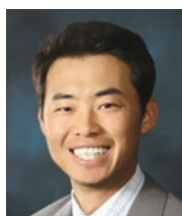
아동결연 신청 및 콘서트 문의  
전화 : 877-499-9898  
카카오톡 ID: gnusa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 (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 남가주 지역 10개 찬양대와 합창단 한 목소리로 주 찬양



제 38 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는 제38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가 오는 11월 17일(주일) 오후 6시에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중규 목사)에서 열린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라는 주제

김동욱 기자

로 진행되는 합창제는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를 비롯해 감사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RK 빅 밴드, 라흠 여성 합창단, 레위 남성 성가단, 오렌지 카운티 한인 마스터 코랄,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여성 합창단, 오렌지 미션 과이어, 월드 플레이어 여성 코랄 등 남가주 지역 10개 찬양대와 합창단이 출연한다.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기관 ‘물덴 동산’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현미 회장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초교과 교회 연합기관으로 남가주 지역 한인 교회 음악의 질적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고 연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교회음악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과 신앙 부흥운동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왔다”라고 소개했다.

전 회장은 또 “남가주 지역 한인 찬양단과 합창단이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했다. 문의 : 714-891-2029

## HYM 더글러스 김 목사

###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청년 집회 인도

“복음을 위탁 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자”



더글러스 김 목사가 분당 할렐루야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마치고 청년부 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년을 하루같이 청년 복음화에 헌신해 온 더글러스 김 목사(HYM 대표)가 한국 교회를 순회하며 청년들에게 복음을 향한 삶의 도전과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김 목사는 지난 10일, 한국의 분당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 청년부 예배에서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Entrusted with the gospel)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본국 청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삶을 강조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더글러스 김 목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라고 힘주

어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복음을 위탁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힘 있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자”고 전했다.

더글러스 김 목사는 이어 오는 15일 신촌감리교회와 17일에는 강원도 흥천 품양교회에서 각각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어권 청년들의 복음화를 외치며 1999년 9월 11일에 시작해 올해로 20년을 맞은 HYM청년연합집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 남가주 청년부흥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HYM 집회를 거쳐간 청년들은 대략 2만여 명에 이르고 당시 집회 참석했던 청년들은 목회자와 선교사 각 교회의 중직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 비즈니스선교에 필요한 회계 및 퀵북 실무과정 공개 강좌



제임스 구 교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대표 제임스 구 교수,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주관하고 그레이스미션 대학이 후원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사역 퀵북 공개 강좌가 오는 11월 23일(토)부터 12월 21일(토)까지 5주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익스텐션 강의실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서 개최된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기본 개요와 함께 전문인 선교에 대한 직업소명론에 대한 강의와 함께 회계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퀵북 프로그램을 직접 랩탑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무 교육으로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 사업체, 교회, 선교회, 선교사, 신학생들을 위해 준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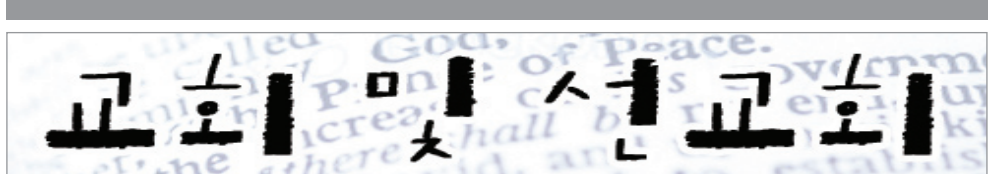
강의는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을 시작으로 △전문인 사역과 직업소명 △기본

회계원리 △회계 △기업형태 △회계 및 재무 기본 △재무제표 △퀵북의 기본기능과 설치 및 주요 메뉴 △계정관리 △북키퍼링 기본 △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비즈니스 선교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매주 오전 9시30분 부터 오후 12시 까지 5번의 강의로 진행되며 첫째 강의는 무료이며, 2주부터 5주는 유료강좌로 등록비에는 퀵북실무를 위한 책자와 교육용 CD가 포함된다. 이번 강의를 맡은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이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실무 퀵북강좌는 퀵북실무 경험자 풍부한 강사들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신청은 선교회 홈페이지(www.churchhomepage.org)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과 비용납부가 가능하며 유료강의는 선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714-393-4595(Center) 213-529-4147(LA Extension)



###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도 이인2세를 확신하며, 이인1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로)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정태원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최순환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방향 왼쪽)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차성구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9, Email: la@sehil.org, la1@seh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정병노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의 성지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정세훈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정인호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박관섭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김중호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김진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나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김غم목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별 담임목사**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주동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주동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查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오전 11:00 Awarr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00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요일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새벽기도회 월요일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818)363-5887 Tel: (323) 837-99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존 바이든 전 부통령. ©보도화면 캡처

**낙태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 때문**

미국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의 한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가 성찬식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세인트앤소니 가톨릭교회(Saint Anthony Catholic Church) 로버트 E. 모레이(Robert E. Morey) 목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의 성찬식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모레이 목사는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룩한 성찬식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강조한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인이라고 할 지라도 교회의 가르침 밖에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스크랜턴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곳의 사제는 그가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그가 대선 출마를 밝힌 후, 몇 명의 미국 주교들은 교구에서 그의 성찬식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2년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기독교인,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프랜시스 찬 목사 “내년 2월 아시아로 선교 떠날 것”**



프랜시스 찬 목사. ©PULSE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

성경교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가 내년 2월 아시아로 선교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찬 목사는 4일 아사사퍼시픽 대학교에서 진행된 채플 시간에 “나와 가족들은 2월 아시아로 갈 계획이다. 몇 달 전 우리 가족들은 미얀마에서 통역사와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찬 목사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평생을 동일한 호수에서 낚시해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줄이 얽히고, 모두 어리석은 일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새로운 미끼를 시도했고, 그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우리도 그의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연못의 무엇이 나를 붙잡아 두겠는가? 난 연못에 집을 지었고, 친구들

도 모두 연못에 집을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낚시를 많이 하지도 않고, 나가서 놓고, 이야기한다. 난 그렇게 내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는다. 그러나 내 소명이 낚시하러 가는 것인데, 저쪽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왜 내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찬 목사는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위치한 코너스톤커뮤니티교회에서 약 20년 넘게 목회를 해왔다. 그는 미국을 떠나게 된 현실에 직면하면서 향수병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보다 너무 영리해 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진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만약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탈북자의 절규

## ‘나우’ 지성호 대표, 다니엘기도회서 ‘북한 인권’ 호소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는 지성호 대표 ©2019 다니엘기도회 영상 캡처

탈북자의 가슴 아픈 호소와 절규가 한국교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야 하는 이들을 대신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북한 인권 단체인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가 6일 ‘2019 다니엘기도회’에서 자신이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와 있는지를 눈물로 증언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지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자녀가 태어나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손자도 그 손자도 우리가 그 끈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또한 감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그는 어릴적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 끝내 석탄을 훔치는 과정에서 사고로 왼 다리와 왼 손을 잃었던, 지옥과도 같았던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 땅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라고,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지 대표는 “정말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다. 오늘 저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금식하고 있다. 배가 고프고 탈북한 내게 금식은 보통 일이 아니”라며 “이 기도회 기간,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하루만 금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 갔을 때, 그들에게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내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신의 기자

# “청년들은 미래의 지도자 아닌 오늘의 지도자” WEA총회서 싱가포르 탄 서우 하우 목사 강연



탄 서우 하우 목사는 “튼튼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부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싱가포르에서 활발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탄 서우 하우(Tan Seow How, Heart of God church) 목사가 “다음세대 사역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간 신앙 계승으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교회와 아닌 청년 지도자 층을 두텁게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미래의 지도자가 아닌 오늘의 지도자로 여기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WEA 총회에서 11일 오후와 12일 오전 세션 강연자로 나선 탄 서우 하우 목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세대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삭과 같이 세대를 잇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세대를 잇는 자리에 있다. 다음세대에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부인 리사 사모와 9명을 대상으로 청년 사역을 시작한 그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젊은 대형교회를 이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22세로 어린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 자신들보다 더 어린 세대를 이끄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 그 아이는 드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드림 패달을 밟을 수 없었다. 당

시 교회가 어려웠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 드림을 치기 어려우면, 베이스 기타를 쳐보라고 권했고 14살 때 베이스기타를 쳤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예배 때 연주를 맡았다. 그들에게 메인 무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10년이 지난 후 21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가장 어린 워십 리더이다.”

하우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청년 사역에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닌 투자이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해야 한다. 교회를 가족들과 사랑이 있는 집처럼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의 짐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우리는 ‘내가 교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면 교인으로 받아들여줄게’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교회에 속해야 한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내일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의 소망”이라며 “세상이 그들을 데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보다 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이름딛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담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T.O.T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동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의 열매를 실리는 제자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포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주동부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인사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wbcsc.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복송?”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 탈북민들 규탄집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 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후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을 가리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복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복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복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환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복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던지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내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

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복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위환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판파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혀라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범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신의 기자

“강제 추방된 北 어부들, 극형 가능성 커”



그렉 스칼라티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북한 어부들은 어떻게 될까? 잔인한 극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12일 자유일보 기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멀다”며 “북한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과 비밀 처형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마저도 실패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적절한 재판 없는 처형, 특히 지대공 대우경 기관총을 이용하는 잔혹한 공개처형을 일삼는다면 북한이 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특히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야만 21세기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신학위원장 토마스 슈마허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갓프리 요가라자 부총무. ©강혜진 기자

### WEA 신학위원장 “동성애는 죄... 결코 타협 않을 것”

#### 패널 토의에서 입장 천명

세계복음연맹(WEA) 신학위원장 토마스 슈마허(Dr. Thomas Schirrmacher) 박사가 “동성애는 죄이며, WEA는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 중인 WEA 총회의 패널로 참석한 슈마허

박사는 11일 패널토의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입장에 대해 의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수많은 단체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WEA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갓프리 요가라자(Godfrey Yogarajah) 부

총무 역시 “WEA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단체이다.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단체들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대화하지만,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WEA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천명한 것은 세계교회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강혜진 기자

### 북한 주민 ‘강제복송’ 논란... 의혹 투성이



통일부 김연철 장관 ©통일부

#### 청와대 관계자 문자 찍혀 알려져 미리 공개하지 않은 점 등 의혹 “범죄 혐의? 우리 법정에 세워야”

정부가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추방했다는 점에서 ‘강제복송’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1월 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며 “정부는 이들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국내 한 언론이 우연히 찍은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이다. 이 메시지에

“단결! OOO 중령입니다. 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언론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후에야 통일부가 브리핑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2일 나포한 후 이들을 추방한 7일까지 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자해 위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범죄 혐의가 있다 해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복송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인권 운동가인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는 게 옳은 절차”라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이미 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제복송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 선 처음 있는 일여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20명 무더기 무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법부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현 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오승현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 판결을 처음 받아낸 인물이기도 하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최종 상고심에서 9대 4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 대법원서 판결 뒤집은 당사자 파기환송심서 나머지 17명도 무죄, 1심 항소심 2명도 무죄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러한 판결 결과는 예상했으나, 20명에 대한 일괄 조치는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군 입대자 부족을 이유로 모병제 실시 여부를 타진하는 상황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결과에 비판적

이다. “종교 하나 만들어야겠다. 국민의 의무는 모두 거부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교리로...”, “난 비양심적 인간이라 군대다녀온거구나... 내 나라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지”, “정권 교체하여 특별법 제정하여 종교적으로 병역법 위반 무죄받는 자다 시 군에 보내야 된다”, “와 엠씨몽은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될 걸 괜히 썩이빨 뽑았구나”, “난 오늘부터 양심적 납세거부” 등 해당 판결에 일제히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이대용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rental services, featuring a car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manager.

##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19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logos and information for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RUS,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 (진리의길) 앎,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2020년 11월 1일

등록상담전화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 관심을 가져준 단 한 사람

오래 전 워싱턴의 한 상원의원이 벨지움 나라의 대사를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자기의 아버지를 그 대사에게 소개했는데, 아버지는 처음 만난 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초면에 무례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아들인 상원의원은 당황해서 어쩔줄을 몰라했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 대사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벨지움 대사는 끝까지 정중한 태도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개월 뒤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계 각층에서 보낸 많은 화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화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준,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전 미국의 단 한 사람 뿐이었던 존경하는 분께! 벨지움 대사드림(싸인). 그동안 그 대사가 미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그 노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던 대사가 사실은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즈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불편해서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의 경우는 좋은 계기만 마련되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입니다. 정말 진실이 담긴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엔 벨지움 대사의 케이스처럼 관심을 가져 줄 “단 한 사람”이 없을까요? Who's Your One?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션 베이스를 꿈꾸며

이번 한국 방문 중,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람이 구속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돼지고기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련자들이 불법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뭐든지 외국 제품이 국산 보다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는 물론이고 연필, 볼펜마저 외국 제품이 더 좋았는데 이제 돼지고기는 한국산이 최고라서 유럽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고춧가루, 배추, 소고기 등도 모두 한국산이 최고로 가격도 제일 비쌌습니다. 이번 10월 한국에 몰아닥친 태풍으로 농사를 망쳐 중국에서 배추가 대량 수입될 것이라는 보도에 올해 김장을 걱정하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세계 1등인 여러 가지 상품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국민들도 외국 제품이 아닌 국산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CNN에서 보도한 한국의 세계 제일 10가지 항목에는 인터넷 보급률, 화장품, 여성 프로골퍼, 프로젝트이며, 친절한 비행기 승무원 및 성형수술 수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109번째인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에 일어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동남아와 남미 젊은 이들의 꿈이 한국에 유학 가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Made in USA보다 Made in Korea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격상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통계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약 12만 명 한국은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합한 파송 선교사 숫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미국과 한국이 있고 이 가운데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미주 한인 교회인 베델 교회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라고 봅니다.

남가주에 있는 베델 교회와 한국에 흠어진 베델 성도들의 연합 모임, “베델 패밀리인 코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델에 주신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일에 흠어진 베델 식구들이 선교의 동아줄이 되어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촉매 역할을 하며 교회는 재정 및 교수진을 제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의 재교육과 재충전을 위한 미션 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꿈이 생겼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베델 식구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 시작된 베델 패밀리인 코리아. 두 번째 모임을 마치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6절 - 10절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하여 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며, 또한 큰 위안과 영생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운행하시는 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불안과 걱정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들이 이방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했던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구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절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받아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게되어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함에 찬송과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는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다. 그날도 한 학생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집안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곳에는 냄비가 끓고 있었고 한 구석에는 빨래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학생은 그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보십시오, 학생 같으면 이런데 영영히 살고 싶겠어요?”라고 문을 짱 닫아 버리더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는 백성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들은 뜻밖의 장소와 시간에서 그분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분에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의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라기는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영생에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 본다.

# TOP MEDIA

SIGN & PRINTING

[www.TopmediaUSA.com](http://www.TopmediaUSA.com)

323.265.0244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품!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도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나트륨 Na	Cl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칼륨 K	Cl	나트륨 (Na)
칼슘 Ca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바다의 산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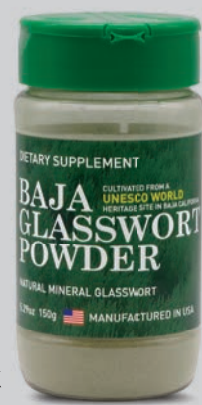
BAJA GLASSWORT POWDER

##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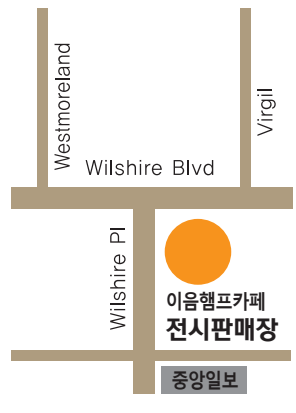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 햄프플러스

###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용,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김교신의 「성서조선」를 중심한 무리들은 기성교회의 교리, 조직, 예배의식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김교신의 선생 내촌감삼은 “교회는 천국에서 가장 먼 곳이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기성교회에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차리를 당한 일은 없었으나, 1932년 12월 「기독교신보」의 사실에서 ‘이삭벨의 무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기성교회를 비난하거나 거부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다만 “성서 본문의 연구와 주해에 전력을 경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개 평신도”로 자처하면서, 성서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를 무교회주의자, 그리고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자로 여기는 것은 그의 신학사상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첫째, 공간을 점유하는 눈으로 보이는 회당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지 않고 신자가 모이는 예배의 장소 자체를 교회로 인정하는 일이지, 둘째, 성직제도에서 비롯된 갖가지 교회가 가진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목사에 의한 세례 등의 의식의 의의를 경시하며) 장로, 집사 등의 직분에 의한 신자들의 조직도 무시하고, 셋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 해석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자 각자가 성서를 통해 직접 하나님과 만나 은혜의 분수대로 신앙의 진리를 깨우침 받는 만인제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기성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교회 거부요, 공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섭리사관(攝理史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교회사적 사명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선교사들이 전수해 준 교파적 신앙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 자체가 가져야 하는 민족 신앙을 주창하게 되었다. 또한 선교사의 재정(財政)에 의존하는 의존적 교회 기구를 거부하게 되었으며, 민족이 주체가 되는 독립적, 토착적 신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성서조선」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색채는 곧 일제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일제는 수 차례 걸쳐 이 잡지의 내용을 트집 잡아 내용 삭제, 발행 중지 등 온갖 박해를 가했다. 드디어 1942년 3월에 조와(弔蛙)라는 권두언이 문제가 되어 「성서조선」은 폐간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조와란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의미로 모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개구리를 반기며 “아, 전멸(全滅)은 면(免)하였구나.”라고 외치면서, 모진 겨울 추위를 못 견디어 얼어 죽은 개구리를 조상(弔喪)한다는 내용이다. 추위는 일제의 포악이요 개구리는 민족을 암시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교신은 함석헌, 유달영, 유영모 등과 함께 투옥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고, 1944년 함흥 질소회사에 입사하여 노무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다 해방을 서 너 달 앞둔 1945년 4월, 44세의 아까운 나이에 발진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

김교신은 기성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무교회주의자요,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분열시킨 사람임에 틀림없다. 무슨 명분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12사도와 교부들에 의해 전승되어 내려오는 기성교회를 거부하고 ‘무교회’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마치 431년 에베소회의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Christotokos)라고 호칭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어 추방당했던 콘스탄티노폴의 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 가운데 가장 역울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김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기에는 그의 성서 사랑, 민족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너무 숭고하고 고결하여 감히 그에게 돌을 던질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김교신 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한 사

람이 얼마나 될까? 그는 일생을 통해 ‘2C’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2C’는 ‘Christ and Chosun’(그리스도와 조선)이었다.

김교신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그의 일기에 남아 있다. 그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 양정고보(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경성의전(현 서울 의과대학) 입학에 치고 면접을 하게 되었다. 지원서를 훑어보던 면접 위원 교수 하나가, 지원서 중 교란에 기독교라 쓴 대목을 보았다.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기에, “자네는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나?”라고 힐난조로 물었다. 이 때 이 학생이 서슴지 않고, “예, 저는 우리학교 김교신 선생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기독교를 나의 종교를 삼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그런데, 김교신은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란 말도, 교회에 나가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김 선생의 삶의 태도와 학생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에서 다른 선생들과 다른 면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그런 김 선생의 삶의 원천이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자기들도 김 선생과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겠다 여기고 스스로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삼았다.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니 목사나 장로, 권사들 가운데, 과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이처럼 고매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의 삶의 흔적은 그가 남긴 글과 그의 일기 등을 통해 자세히 열 볼 수 있다.(김교신 저작전집)

그러나 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고매한 인격이 기성교회를 부인하고 무교회를 이끌었던 일과는 결코 상쇄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지나가야 한다. 그가 규탄했던 더럽혀지고, 타락한 교회지만 2천년 역사를 통해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교회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비록 바람직스런 모습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동족선교칼럼 | 북한인권영화 시놉시스

## 그 여자-이춘화, 기도하는 억류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람회 목사

위 작품의 기획의도(The Preface Behind This Film)는 이렇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선교국가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역을 41일동안 순회 집회 중,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 미국 하늘에 선포케 하심으로 “그녀자 리춘화”가 시작되었다.

미국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동역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한다!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위해 순교한 미국의 3만3천643명의 전사 장병과 그 장병들의 어머니와 유가족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에 빛난 국가이다.

리춘화는 북한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 당하고,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팔려가 3번의 인신매매를 당한다. 중국 농촌의 마을 처녀로 60여명에게 성을 유린당해야 했던 기독교인 리춘화의 고난을 극복 해내는 휴먼 픽션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는 고증과 증언, 자료와 재현 드라마가 구성되는 픽션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그리고 영어가 완벽한 국내 전문배우와 미국내 750만 디아스포라 교포를 대상으로 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리얼한 현실을 완벽한 영어로 재현하려 한다.

첫 이야기는 탈북한 23세의 여인이 겪었던 고난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실상의 현주소를 보게 할 것이다.

두번째 이야기는 북한을 돕다가 억류당해 고초를 겪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로버트 박, 케네스 박, 임현수 목사) 그리고 석방된 지 1주일 만에 의문으로 죽은 오토 웬비어에 대한 증언과 고백들로 구성됩니다. 이 스토리는 아직도 억류중인 한국

국적의 6명의 선교사들을 구출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 이야기는 고난의 행군때부터 증가된 30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성도들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탈출한 지하성도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많은 내외신 기자들앞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분들을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픽션다큐로 미국내 영어권 한인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먼저 미주류사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져 그 파급을 한국사회에 일으키고자 한다.

이러한 좋은 생각도 현실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투자된 자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의 뜻을 함께 할 영화투자자와 기부자가 절실하다. 우리민족에게 향하신

복음과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해외의 흠어진 성도들(디아스포라)과 교회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아래처럼 필요한데 뜻있는 분의 기부가 필요하다.

\*이 영화가 완성되려면, 제작비 \$100만불의 재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합니다.

(문의/참여: 기드온동족선교회 홈페이지 [gideonwusa@gideonbrothers.org](mailto:gideonwusa@gideonbrothers.org))

**1탄, 그 여자 리춘화**  
(The Woman Of Lee Chun 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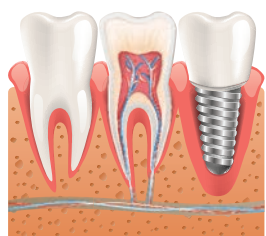
2002년 억울 것이 부족한 리춘화(23)는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려 나왔다가 인신매매되어 팔려 간다. 중국 강촌의 70여명의 노종가들이 계를 부여 하여 마을 처녀로 사온 것이다. 하루에 2명씩 순번제로 남자를 삼대 해야만 하는 온갖 잔인한 일을 살다,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지해내어서 여원내 마을 공장의 위치에서 전 땅의 이야기가 된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억울과 팔을 넘어 믿음은 희극 한 뒤, 눈앞과 믿음의 학년 춘화는 고주를 알러다, 지나가던 조선족 상인의 도움으로 신망으로 도망친다.

북한여성 중국 인신매매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깐!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 이동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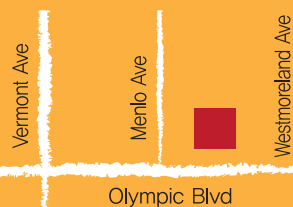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59-271  
 공미라고  
 머그컵8원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빠른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기독교일보 | "12월 추억 만들기 모나크 나비" | 겨울 바다 기차 여행 편

**"모나크 나비" 와 "겨울 바다 기차 여행"**

지명	시간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교일보	09:00	- 3020 Wilshire Blvd, 기독교일보 집결	대형 고급 버스
산타바바라	11:00	- 산타바바라 피어 도착 및 힐링 관광	
골레타	11:56	- 골레타 역으로 이동 및 도착 후 기차 탑승	AMTRAK 기차 여행
그로브비치	13:59	- [태평양 연안 기차 여행] 그로브 비치 도착 * 중식은 기차 내에서 고급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	중식: 고급 도시락
피스모비치	14:05	- [모나크 나비 투어], 피스모 비치 힐링 투어	
	15:00	- 자유 시간 후 L.A.로 출발	
기독교일보	18:00	- 기독교일보 도착 및 해산 / 안녕히 기십시오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고급 도시락), 기차(골레타 / 그로브 비치)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기차 여행 Surf Beach

Tip (\$10) 별도  
**\$99** 기차 포함

Monarch Butterflies

GOLD COAST TOURS

Tel.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뜻과 뜻**

# 그리스도인, '다른 생각' 하는 사람 되어야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유명만 나무생각 | 252쪽

누굴 만나냐에 삶 크게 바뀐다  
뜻은 나오미를 만나 인생 역전  
뜻은 소돔을 선택해 인생 비참  
우리가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의 좋은 만남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뜻'은 '나오미'를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 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뜻'과 이름이 비슷한 '뜻'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을 선택했다. 소돔의 사람들과 만남은 뜻의 인생을 비참하게 바꾸어 놓았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었다.

어렸을 적 어머니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셨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도록 기도하셨다. 만남의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 지금까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인생에 항상 좋은 만남만 있지 않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결과는 똑같다. 인생의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경험하게 한다.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게 한다. 밝은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게 한다. 이런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명만 교수는 그의 책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한다.

**만나지 말아야 할 10가지 유형?**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 기울이라 주고 받아야, 나쁜 놈은 나쁜 놈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진다 책은 읽지 않고 책만 잡히는 사람

**첫째, 귀 막힌 사람이다.**  
귀를 닫고 듣지 않은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는다. 저자는 말한다. "귀(貴)하

게 대접받으려면 귀(耳)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본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다.

**셋째, '나쁜인' 사람이다.**  
사람은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이외수 작가는 나쁜 생각하는 사람, 즉 '나쁜인 놈'을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

**넷째, 365일 과시형이다.**  
지나친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날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인정한다.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창조적인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할 때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많은 문 중에 말문 막는 사람이다.**

말문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진다.

**여섯째, 과거로 향하는 꼰대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다. 현재도 없다. 오직 과거만 있다.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 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 버린다. 저자는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한다"고 말한다.

**일곱째, 감탄을 잃은 사람이다.**

감탄을 잃은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한다. 감탄을 잃은 사람은 삶의 활력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다. 앙드레 지드는 "시인은 자두를 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현실 안주가 아닌 낯선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감탄도 할 수 있다.

**여덟째, 책(冊)을 읽지 않고 책(責)잡히는 사람이다.**

공부는 일종의 지적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추게 된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아홉째,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데 천재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린다.

**열 번째,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질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 이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저자는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것에 관심이 생긴다. 친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뜻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의 현재 모습이다.

몇 년 전 직장인 사이에 '포라이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유행어가 유행했다. 여기서 '포라이'란 상대하기 곱끄러운 모든 사람을 조금 과격하게 지칭하는 단어다.

나에게 곱끄러운 상대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곱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성 젖은? 탄성 지르는 사람들 만남을 통해 변화된다**  
**생각 다르게? 아예 다른 생각을 그리스도인, 만나야 할 사람으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이

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만나지 말아야 할 유형에 관해서 설명한다. 2부는 '이런 사람 피하세요'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3부는 '뭔가 다른 이런 사람 되세요'라고 말하며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도 함께 변화된다.

"관계는 주고받는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매사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생각도 신선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변화된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도 고전 속에 살아 있는 수천 년 전의 위인들의 생각을 배우고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변화를 선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뭔가 다른 사람은 '생각을 다르게' 하기보다,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 대안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 55:8)".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과 만남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자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꼭 만나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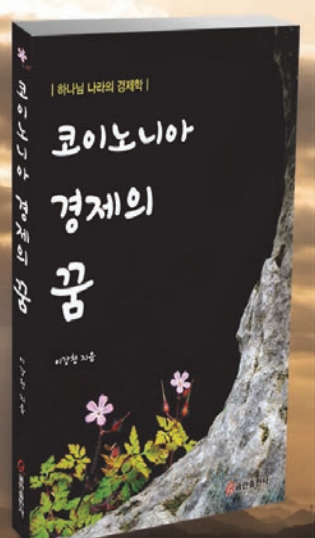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공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밝히는 대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전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미주성결교회 총회 창립 40주년 기념**

# 하와이 평신도연합 성결인대회

# 시경의 능력 (수 3:5)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7시 ~ 24일(주일)**

**하와이 갈보리교회 (제키 카오후 목사 시무) 오후 2시 | 오후 7시**

Hawaii Calvary Evangelicals Church

1814 Algaroba St. Honolulu, HI 96826

**문의 +1 808 295 2630**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용배 목사**



평신도부장  
**제키 카오후 목사**

**강사 백송이순희 목사**

백송교회담임목사  
영혼의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주관  **미주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후원 **한국성결신문사, 기독교일보 (미주)**

**\*백송교회 집회 일정안내**

**영적대각성 부흥회**

12차 11/11(월)-11/14(목) 보령 백송수양관  
13차 12/9(월)-12/12(목) 보령 백송수양관

**성령 컨퍼런스**

69차 12/16(월)-12/20(금) 보령 백송수양관

**문의 032)323-1291(교회) / 041)931-0195(수양관)**